

세조의 원각사13층석탑 건립과 그 의미체계

남동신(南東信)

I. 머리말

II. 13층탑의 경전적 배경과 조성 사례

1. 경전적 배경과 『大般涅槃經後分』
2. 동아시아의 13층탑 조성 사례

III. 원각사13층석탑의 의미체계

1. 세조의 『翻譯名義集』과 『圓覺經』 중시
2. 13층탑의 정치적 상징성

IV. 맺음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天宮으로서의 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 13(2014); 「佛敎의 理想世界로서의 佛國寺」, 『新羅文物研究』 12(2019); 「甘山寺 阿彌陀佛像과 彌勒菩薩像 造像記의 연구」, 『美術資料』 98(2020) 등

1467년에 완성된 원각사13층석탑은 한국 역사상 최후의 호불군주에 의한 최후의 도성불탑이다. 필자는 세조가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都城 중심부에 13층석탑을 세우고 탑에 釋迦舍利와 함께 ‘新譯圓覺經’을 봉안한 뜻을 세조의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13층탑의 경전적 배경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특히 필자는 13층탑 건립의 직접적인 소의경전으로서 『大般涅槃經後分』을 최초로 발굴하고, 이 경전이 7세기 후반 중부 자바에서 번역되고 동아시아에 유통된 사실을 추적하였다. 아울러 13층탑의 기원으로서 이른바 카니시카양식의 탑을 주목하고 동아시아와 한국에서의 13층탑 조성 사례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불교 문헌을 탐색하여 ‘13층’이 깨달음[Buddha]으로 나아가는 수행 단계를 상징함을 입증하였다. 확실히 ‘13’은 불교도에게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신성한 숫자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세조의 원각사13층탑 건립의 불교적 정치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불교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세조가 중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조선에 최초로 유통시킨 『翻譯名義集』과, 그가 최초의 한글 번역에 직접 개입한 『圓覺經』에 주목하였다. 『번역명의집』은 14세기에 출현한 일종의 불교 용어집인데, 세조는 원각사탑을 창건할 무렵 이 문헌을 통하여 13층탑의 소의경전인 『대반열반경후분』을 알았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세조는 대장경 전체를 상징하는 단일경전으로 ‘신역 원각경’을 원각사탑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최초의 한글 번역에 깊이 관여한 『원각경언해』였다. 아울러 『원각경언해』의 저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宗密의 『圓覺經略疏』임을 밝혔다.

원각사탑 건립의 정치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조선 초 왕실의 陵寺(또는 眞殿寺院)에 세워진 석탑—敬天寺13層石塔, 開慶寺石塔, 衍慶寺石塔, 神勒寺多層石塔—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조가 자신의 왕위계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징으로서 원각사13층석탑을 건립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13층탑으로서의 원각사탑의 의미체계를 온전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말선초 정점에 달한 불탑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카니시카대탑에서 기원하고 『대반열반경후분』에 근거하는 동아시아의 13층탑을 연구하는 데 한국적 연구모델로서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세조, 원각사탑, 경천사탑, 13층탑, 카니시카대탑, 대반열반경후분, 번역명의집, 원각경, 원각경언해

세조의 원각사13층석탑 건립과 그 의미체계

남동신(南東信)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서울의 탑골공원에 현존하는 ‘원각사13층석탑’은 최후의 호불군주인 世祖가 건립한 최후의 도성 불탑이다. 본고에서는 ‘원각경’과 ‘13층’에 초점을 맞추어 세조가 건립한 이 탑의 의미체계를 밝혀보 고자 한다.

1467년(세조 13) 사월 초파일 개최된 원각사탑 낙성법회를 끝으로 원각사 창건의 대공사가 3년 만에 일단락되었다.¹ 그 직후 세조의 명으로 金守溫이 「大圓覺寺碑銘」을 찬술하였으며, 비는 1471년(성종 2) 원각사탑 가까이에 세워졌다(도 1). 이 비에서 언급한, 세조가 한양 도성 한복판에 원각사를 창건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가람배치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² 필자는 비 명 중에서 원각사탑을 직접 언급한 구절에 주목하고자 한다. ‘又建窣覩婆十有三層, 安分身舍利及新譯圓覺經’³의 도합 20자에 불과하지만, 원각사탑의 층수와 봉안 성물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원각사 탑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자료이다(도 2).

* 이 논문은 남동신, 「圓覺寺13層塔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오해」, 『美術資料』 100(2021)의 후속 논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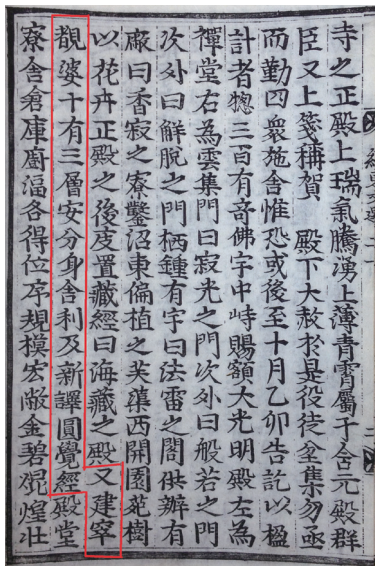
1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1467) 4월 8일 癸卯.

2 원각사의 연혁을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能和 尙玄, 「大圓覺寺經像鍾塔事蹟一括」, 『佛教振興會月報』 1-1(1915);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鄉土서울』 2(1958); 강순형, 「圓覺寺 年表」, 「원각사 10층 대리석탑 특별전」(서울: 궁중유물전시관, 1994); 李炳熙, 「朝鮮前期 圓覺寺의 造營과 運營」, 『文化史學』 34(2010) 등이 있다. 그리고 원각사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는 蘇在龜, 「圓覺寺址十層石塔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1986) 및 궁중유물전시관, 「원각사 10층대리석탑 특별전」(1994)이 있다.

3 金守溫, 「大圓覺寺碑銘」, 『續東文選』 권20; 「朝鮮金石總覽」 下(朝鮮總督府, 1919), p. 748.



도 1.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1471년 건립, 비신 높이 2.49m, 너비 1.32m, 보물



도 2. 원각사비명의 13층탑 관련 구절, 『속동문선』 권2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안타깝게도 원각사탑이 근대에 재발견된 이래 지난 백여 년 동안 국가가 공인한 '10층설'에 근거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13층에 담긴 함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⁴ 필자는 세조가 원각사에 13층석탑을 건립한 의미를 동아시아불교로 시야를 확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불교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카니시카대탑을 13층탑의 기원으로서 주목하며, 13층탑의 경전적 근거로서 최초로 『大般涅槃經後分』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원각사탑을 조선 초 능사에 건립된 다른 탑들과 비교함으로써 원각사탑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한편 위의 비문에서 석가사리와 '신역 원각경'을 완성된 탑에 봉안하였다고 하는데, 두 성물은 여타 문헌에서 언급된 바 없으며, 유물이 출토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두 성물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필자는 『圓覺經』을 따서 탑과 절의 이름을 지은 사실에 주목하여, '신역 원각경'에 대하여 좀 더 천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조가 원각사 창건에 앞서 친히 구결, 언해, 간행한 『원각경언해』의 저본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출할 것이다.

요컨대, 지난 백여 년간의 연구가 근대 건축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면, 본고는 탑을 창건한 세조의 관점으로 되돌아가서 원각사13층탑의 의미체계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4 10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남동신, 『圓覺寺13層塔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오해』, 『美術資料』 100(2021), pp. 50-80 참조.

II. 13층탑의 경전적 배경과 조성 사례

1. 경전적 배경과 『大般涅槃經後分』

1) 카니시카대탑의 13층 상륜

세조가 13층탑을 건립한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불교식 탑의 다층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탑은 산스크리트어 stūpa의 음역으로 무덤을 뜻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생전에 추앙받던 인물을 위하여 왕래가 잦은 교차로에 무덤을 만들어서 추모하였는데, 불교가 이러한 건탑 문화를 받아들여서 석존 입멸 후 탑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교단 내에서 건탑 문화가 확산되자 탑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유자격자는 다시 존격에 따라 세울 수 있는 탑의 층수를 차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엄학을 집대성한 法藏은 『華嚴經探玄記』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長阿含經에 따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응당 탑을 세우는데 부처와 벽지불과 성문과 전륜성왕이다. 眞諦 삼장이 인용한 十二因緣經에는 여덟 부류의 사람들이 응당 탑을 세운다고 하였다. 즉, 여래는 노반이 8층 이상으로 이것이 불탑이다. 보살은 노반이 7층이며, 연각은 6층, 아라한은 5층, 아나함은 4층, 사다함은 3층, 수다원은 2층이다. 전륜성왕은 1층인데, 보더라도 예는 하지 않으니 聖塔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摩訶僧祇律에서는 범승도 탑을 응당 세우되, 聖人이 아니기 때문에 노반은 없다고 하였다.⁵⁾

이처럼 법장은 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장아함경』과 『십이인연경』을 인용하여 4종인 내지 8종인을 들고 『마하승기율』을 인용하여 범승을 추가하되, 존격에 따른 노반 층수의 차등을 언급하였다.

佛陀耶舍와 竺佛念이 한역한 『장아함경』은 30종의 경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遊行經』에 위 구절을 포함하여 장법에 관한 석존의 유언과 집행이 확인된다.⁶⁾ 또 『유행경』의 이역본인 『佛般泥洹經』, 『般泥洹經』, 『大般涅槃經』 등에도, 전륜성왕의 장법에 준하여 석존을 화장하고 네거리에 탑을 세운다는 내용이 보인다.⁷⁾ 그중에서도 『대반열반경』 3권은 法顯이 한역한 것인데, 그는 『장아함경』 전체를 번역하다 미완에 그친 바 있으며, 위의 『마하승기율』을 공역하였다.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석존은 전륜성왕의 장법에 준하여 자신의 장례를 치를 것을 당부하되, 전륜성왕의 탑과 달리 자신의 탑은 表刹에 九繖, 즉 9층의 산개를 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탑을 세울 수 있는 4종인을 열거하고, 만약 중생들이 이들의 탑을 공양한다면 복리를 얻으리라 약속하였다.⁸⁾ 여기에 대응하는 팔리어 『대반열반경』(Mahāparinibbana Sutta)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전한다. 특히 여래, 벽지불, 성문, 전륜왕

5) 法藏, 『華嚴經探玄記』 8(T.35, 262b:13-21).

6) 『長阿含經』 3 遊行經(T.1, 20b:21-24).

7) 白法祖 譯, 『佛般泥洹經』 下(T.1, 173a:17-26); 역자 미상, 『般泥洹經』 下(T.1, 186c:18-23).

8) 法顯 譯, 『大般涅槃經』 中(T.1, 199c:27-200b:3).

의 탑은 대중으로 하여금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사후에 天界에 재생할 수 있게 하므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탑을 세우기에 족하다고 하였다.⁹

이들 불교 문헌은 인도 불교 초기부터 무덤으로서 탑을 건립하는 문화가 석존에서 시작하여 점차 범승, 장로로 확산되면서, 존격에 따라 노반의 층수를 차등하였음을 보여준다. 탑신 위에 놓이는 노반 또는 금반은 수레바퀴 형상을 하기 때문에 相輪이라고도 하는데, 상륜은 고대 인도에서 왕과 같이 고귀한 인물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산개에서 유래하였다. 석존의 탑을 전륜성왕의 예에 준하여 조성하면서 존엄성을 상징하는 커다란 산개로 복발을 장엄하였으며, 차츰 산개에서 유래하는 상륜으로 층수를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인도의 복발식 탑과 달리 중국의 누각식 탑에서는 상륜 대신 탑신으로 층수를 구분하게 되었다.

층수의 차등 원칙에 따라 존격이 가장 높은 불탑의 층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데, 후대로 갈수록 층수가 많아졌다. 그중에서도 간다라를 방문한 釋尊이 예언한 대로 불멸 3백년 후에 출현한 카니시카왕이 세웠다는 대탑은 주목할 만하다. 이 탑은 불교 역사상 유명한 서역의 雀離浮圖로서 인도 및 서역의 승려나 동아시아의 구법승이 그토록 순례하기를 원하던 最高의 불탑이었다.¹⁰ 구법승과 사절의 견문이 다수 전하는데, 문헌에 따라 탑의 높이나 상륜의 층수가 조금씩 다르다.

5세기 초 인도의 불적을 순례한 법현은 간다라국 남쪽 弗樓沙國(지금의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카니시카왕이 세웠다는 높이 40여 척의 불탑을 참배하였다. 그는 이 탑이 세상에서 가장 장려하고 위엄있다고 하였을 뿐, 층수는 말하지 않았다.¹¹ 그런데 6세기 초 북위의 관료 楊衒之가 편찬한 『洛陽伽藍記』는 ‘宋雲家記’를 인용하여 카니시카왕이 세운 작리부도의 창건연기설화와 제원 및 연혁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金槃 13重’이라고 하였다.¹² 이는 13층설이 문헌에 나타나는 가장 이른 예이다. 宋雲은 일찍이 取經의 사명을 띠고 서역에 파견된 북위의 사절이었다. 그는 520년 간다라국을 방문하였을 때 작리부도를 직접 참배하고 공양하였으므로, ‘금반 13층’을 포함한 그의 기록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唐 道世가 664년에 편찬한 불교백과사전 『法苑珠林』은 ‘西域志’를 인용하여 간다라 도성 교외의 작리부도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 내용은 송운의 여행기와 거의 같아서 ‘金槃 13重’이라고 분명히 하였다.¹³ 이처럼 6세기 초~7세기의 신뢰할 만한 자료는 카니시카대탑의 상륜이 13층이었음

9 平等通昭 譯, 『大般涅槃經』 5 誦品『南傳大藏經』 7(1935), 東京: 大藏出版社, pp. 126-128.

10 작리부도에서 작리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다가타 아키라의 견해는 경정할 만하다. 그는 雀離를 범어 cakri의 음역으로서 法輪 cakra가 들어가는 합성어를 만들 때의 어형으로 추정하고, 그것이 작리부도 관련 문헌에서 언급하는 ‘金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定方 晟, 『雀離浮圖の名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9-1(1980), pp. 31-36.

11 『法顯傳』 1 弗樓沙國(T.51, 858b:12-21).

12 『洛陽伽藍記』 5(T.51, 1021a:25-b:9), “至乾陀羅城 東南七里 有雀離浮圖 … (迦尼色迦)王 始更廣塔基三百餘步, … 從此構木 始得齊等, … 悉用文木爲陛階砌 櫺拱上構衆木 凡十三級. 上有鐵柱 高三尺 金槃十三重 合去地七百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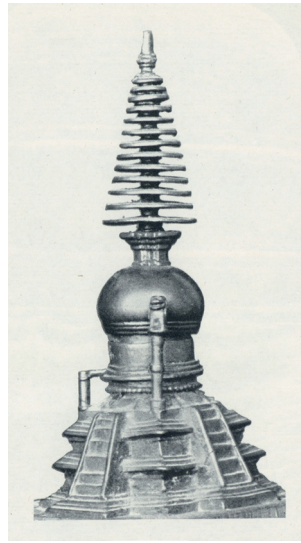
13 『法苑珠林』 38 敬塔篇 古塔部(T.53, 589a:22-589b:3), ‘西域志’는 前秦의 승려 道安의 저술로 일찍 유실되어서 酈道元

을 증언한다.¹⁴

기원 2세기 무렵 쿠샨조의 카니시카왕이 건립하였다는 작리부도는 파키스탄 페사와르 동남쪽에 있는 샤지키테리(Shah-ji-ki-dheri) 대탑지로 비정된다. 탑지는 한 면의 길이가 대략 54m로서, 애초의 원형 기단에서 언제인가 십자형 평면으로 구조가 변경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유적에서 카니시카왕이 승원에 봉헌한다는 명문이 새겨진 동제 사리기가 출토되었다.¹⁵ 정방형 평면에서 4면의 중앙부를 다시 돌출시켜 전체적으로 그리스식 십자형 평면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에 보이는 四面斗出星形에 해당한다.



도 3. 카질 출토 '보관형 석가불좌상'의 좌협시 황동탑, 714년, 카니시카 양식, 상륜 13층(Asia Society 소장)
(Rob Linrothe, Melissa R. Kerin, Christian Luczanits, 2014)



도 4. 쿠르키하르 출토 청동탑, 팔라시기, 카니시카 양식, 상륜 13층(파트나 박물관 소장)(Debala Mitra, 1971)

의 『水經注』 등에 인용된 단편을 통해서 내용을 짐작할 뿐이다. 王守春, 「釋道安與《西域志》」, 『西域研究』(2006, 4期), pp. 30-33.

14 송운과 함께 파견된 낙양승 惠生의 여행기는 12층이라 하였으며(T.51, 867b:4), 『낙양가람기』에 함께 인용된 북위의 구법승 道榮傳은 15층이라고 하였다(T.51, 1021b:9-10). 심지어 道宣의 『續高僧傳』 4 玄奘傳(T.50, 448c:8-9)과 『釋迦方志』 上(T.51, 954c:21-22)에서는 '相輪上下二十五重'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설이 분분한데, 이는 탑이 여러 차례 중수되면서 층수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고, 탑의 높이가 6, 7백 척이나 되어서 지상에서 상륜의 층수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15 D. B. Spooner, "Excavations at Shāh-jī-kī-dhērī," *Annual Report,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1908-1909*(Calcutta: The Superintendent of Government Printing, 1912), pp. 38-59; 桑山正進, 「Shah-ji-ki dheri主塔の遷變」, 『東方學報』 第67冊(1995), pp. 408-331.

문헌에 보이는 相輪(또는 금반) 13층, 그리고 고고발굴로 확인된 십자형 평면(또는 사면두출성형)은 카니시카대탑의 양식적 특징이다. 이러한 카니시카양식은 현존하는 금속제 소형 탑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뉴욕의 Asia Society가 소장하고 있는 보관형 석가불좌상은 흥미롭다. 은이 섞인 황동으로 주조한 이 상의 대좌 명문에 따르면 길기트(Gilgit,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의 왕족과 고관이 714년에 봉헌하였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본존상 좌우의 두 협시탑으로서, 십자형 평면의 3층 기단, 복발 형상의 탑신, 13층의 상륜을 갖춘 전형적인 카니시카양식의 탑이다(도 3).¹⁶ 또 다른 실례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Patna)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형 청동탑이다. 이 탑은 비하르주 쿠르키하르(Kurkihar, 雞足山)의 유적에서 1930년에 출토되었으며, 동반 유물인 불상들의 명문으로 보아 팔라(Pala) 시기의 봉헌물로 추정된다(도 4).¹⁷ 사다카타 아키라는 이를 작리부도의 모형으로 추정한 바 있다.¹⁸ 이 두 금속제 소형탑은 8세기 무렵 인도에서 십자형 평면의 3층 기단, 복발 형상의 탑신, 13층의 상륜을 갖는 카니시카양식의 탑이 조성되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2) 『大般涅槃經後分』의 13층탑

불탑에서 층수는 피장자의 존격이나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3층탑 만큼은 석존이 유언으로 건립을 당부하였다는 경전이 출현하였다. 그것이 바로 會寧과 若那跋陀羅가 함께 번역한 『大般涅槃經後分』(이하 열반경후분)이다. 지금까지는 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열반경후분』이야말로 13층탑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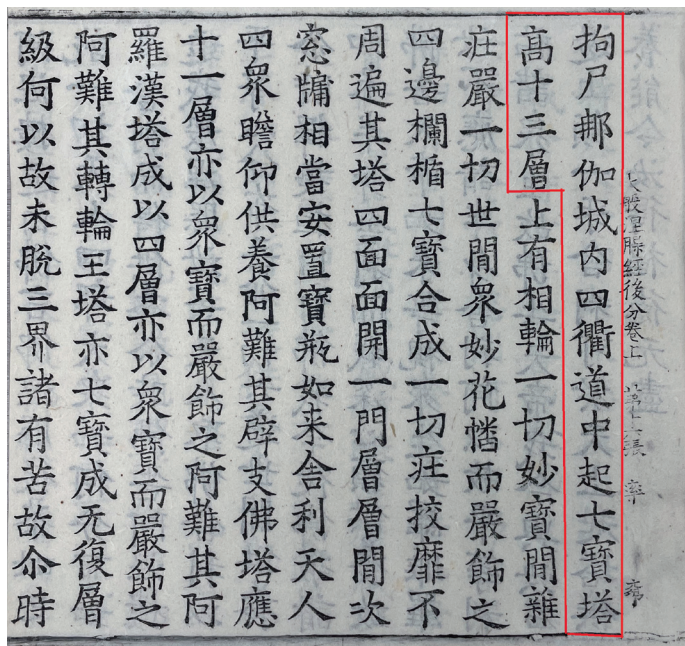
한역경전 가운데 열반경류는 소승 『열반경』 5부와 대승 『열반경』 3부가 있는바, 『열반경후분』은 대승 『열반경』으로 분류된다.¹⁹ 그런데 내용상 『열반경후분』은, 교리 중심의 다른 경전과 달리, 죽음을 앞둔 석가모니가 아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장례, 사리탑 건립 등 사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것이 전부여서, 독립된 경전이라기보다는 기존 『열반경』의 후속 경전에 가깝다. 형식에 있어서도 경 첫머리에 眞經의 요건인 六成就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공장 ‘爾時 須跋陀羅’로 시작한다. 또한 전체 5품에서 품의 이름과 順次에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첫 번째 품인 橋陳如品餘는 ‘교진여품의 남은 이야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교진여품’은 북본과 남본의 『열반경』 마지막 두 권에 실린 교진여품을 가리킨다. 그러나 쿠시나가라에 살고 있는 外道 수발타라가 석가모니 최후의 설법을 듣고 불교도로 개종한 다음 석가모니에 앞서서 열반에 든다는 이야기는, 대승 계통의 남·북본

16 Rob Linrothe, Melissa R. Kerin, Christian Luczanits, *Collecting Paradise: Buddhist Art of Kashmir and its Legacies*(New York and Evanston: Rubin Museum of Art and Mary and Leigh Block Museum of Art, 2014), pp. 55–63, Fig. 1,28.

17 Debala Mitra, *Buddhist Monuments*(Calcutta: Sahitya Samsad, 1971), p. 90, Photographs 43.

18 定方 晟, 『カニシカ王と菩薩たち』(東京: 大東出版社, 1983), p. 126 注 21.

19 涅槃經類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小野玄妙 編纂, 『佛書解説大辞典』(重版)(東京: 大東出版社, 1968), pp. 414c–425b 참조.



도 5. 『열반경후분』의 '13층탑 관련 구절', 고려대장경 1915년 인출본(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열반경』이 아니라, 5세기 초 法顯이 한역한 소승 계통의 『대반열반경』과 상당히 유사하다.²⁰ 경문 중에서 13층탑 건립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하고 다비가 이미 끝났거든, 모든 사부대중은 사리를 수습하여 칠보병에 안치하라. 그런 다음 쿠시나가 성안 네거리에 높이 13층의 칠보탑을 세워라. 그 위의 상륜은 일체의 오묘한 보배로 장엄하고 일체 세간의 오묘한 화변으로 장식하며, 사방의 난순은 칠보로 합성하고 일체의 장식은 빠짐이 없게 하라. 탑은 사면에 면마다 문 하나를 열고 층층이 창을 두어서, 보병에 안치한 여래의 사리를天和人和 사부대중이 우러러보며 공양토록 하라(도 5).”²¹

여기서 석가모니의 장법으로 화장과 건탑을 채택한 점, 석가사리를 넣은 보병을 안치할 탑을 성안 네거리에 세운다는 점, 탑의 높이를 13층으로 한다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후술하겠지만 원각사탑은 석가사리를 봉안하였으며, 한양 도성의 중심에 건립되었으며, 두말할 나위 없이 13층탑이다.

『열반경후분』의 공동 번역자인 회녕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義淨이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입전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회녕은 泗川省 출신의 율사로서 麟德 연간(664-665)에 해로로 인도 구법을 떠

20 法顯 譯, 『大般涅槃經』 下(T.1, 203b:24-204b:26) 참조.

21 若那跋陀羅 譯, 『大般涅槃經後分』 上(T.12, 903a:28-903b:6; K0107).

나 訶陵에 이르러 3년을 체류하였는데, 그때 현지 승려인 야나발타라와 함께 『열반경후분』을 한역하였다. 번역 직후 제자를 시켜 交趾를 거쳐 장안의 황궁에 바치도록 하고 자신은 인도로 떠났는데,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하였다.²² 玄奘의 제자 慧立(615~?)이 지은 序에 따르면, 儀鳳 초(676)에 交州都督이 『大般涅槃經茶毘分』 2권을 장안으로 보냈으며, 678년에 慈恩寺主 靈奘가 東安宮에 경의 유통을 청원했다고 한다. 동안궁은 章懷太子 李賢을 가리키는데, 그는 당 고종과 측천무후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측천무후가 섭정하던 시기에 황태자 李弘이 죽자 황태자로 책봉되고 監國을 맡았지만, 680년 역모 혐의로 폐위되었다. 따라서 이 경전이 장안불교계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676년~680년 사이로 좁혀진다. 그리고 측천무후 天冊萬歲 원년(695) 10월에 칙명으로 『大周刊定衆經目錄』에 처음 등록되었다.²³ 이처럼 『열반경후분』은 玄奘의 문도들이 처음 주목하였으며, 늦어도 측천무후 집권기에 대장경에 入藏된 것이 분명하다.

공역자인 가릉 출신의 야나발타라[智賢]는 중국에 오지 않은 듯하다.²⁴ 후대 자료인 志磐의 『佛祖統紀』에서는 야나발타라가 이 경을 스리랑카에서 가릉국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²⁵ 현전하는 팔리어 불전 가운데 여기에 상응하는 경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열반경후분』이 처음 출현한 지역이 해상 실크로드 상의 요충지인 가릉이라는 사실이다.

訶/迦陵(Ka-ling)은 당대 문헌에는 波凌(Ho-Ling), 송대 문헌에는 閩婆(Java)로도 표기된다. 현재의 위치에 대하여는 말레이반도설, 자바섬 서부설, 자바섬 동부설 등으로 나뉘는데,²⁶ 근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있었던 샤일렌드라 왕조로 비정하는 추세이다.²⁷ 중부 자바는 당시 샤일렌드라왕조가 번영하였던 곳이며, 샤일렌드라 왕조가 8세기 중반 이후에 건설한 보로부두르대탑은 세계 최대의 불탑이다.

보로부두르대탑의 제1층부터 제4층 회랑의 주벽과 외벽에 장식된 부조가 대승불전과 관련 있는 일찍부터 주목받았다.²⁸ 그중에서도 제2회랑 주벽(Ⅱ A)에서 시작하여, 제3회랑 주벽(Ⅲ A)과 바깥벽(Ⅲ B) 및 제4회랑 주벽(Ⅳ A)에는 산스크리트어본 『화엄경』 입법계품(Gaṇḍavyūha)의 서문을 필두로 선재동자가 55회에 걸쳐 53명의 선지식을 순방하면서 보현행원을 닦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보현행원찬까지의 도합 388 도해가 5개의 벽에 부조되어 있다. 산스크리트어본은 실차난타 역 80권

22 『大唐西域求法高僧傳』 上, 會寧(T.51, 4a:2-21).

23 『大周刊定衆經目錄』 2(T.55, 385b: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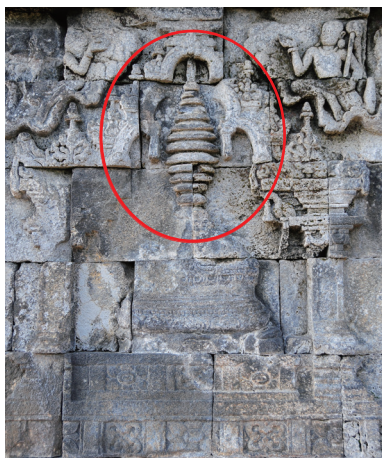
24 『宋高僧傳』 2 唐波凌國智賢傳(T.50, 717b:23-c:14) 참조.

25 『佛祖統紀』 39(T.49, 367c:4-7).

26 말레이반도설의 입장에서 학설을 검토한 논고로는 石澤 發身, 「閩婆及爪哇異同考」, 『史學雜誌』 제11편 제9호(1900), pp. 32-59; 同 제11편 제10호(1900), pp. 37-61가 있음.

27 W. J. van der Meulen S. J., "In Search of HO-LING," *Indonesia*, vol.23(Cornell Univ. Southeast Asia Program, 1977), pp. 87-112.

28 N. J. Krom, *BARABUḌUR, Archaeological Description*, vol.Ⅱ(The Hague: Martinus Nijhoff, 1927; New Delhi: Gyan Publishing House, reprinted 1986), p. 54, 98. Stūpa-worship.



도 6. 보로부두르대탑 제2회랑 주벽 남쪽 98번 도해, 전단좌불탑의 13층 상륜(주경미 촬영)



도 6-1. 도 6의 세부

본 『화엄경』 입법계품 및 반야 역 40권본 『화엄경』과 내용이 부합하며, 이들 부조상의 제작 시기는 8세기 후반~9세기 초로 추정된다.²⁹

이 가운데 제2회랑 주벽 남쪽 98번 도해는 주목할 만하다. 이 부조는 선재동자와 27번째 선지식인 선도성의 거사 비슬지라의 만남을 보여준다. 입법계품에 따르면, 비슬지라는 늘 栴檀座佛塔을 공양하였는데, 그는 탑문을 열 때 ‘부처는 다함이 없다(佛種無盡)’라는 이름의 삼매를 얻었다고 한다.³⁰ 흥미롭게도 98번 도해의 전단좌불탑은 인도식 복발 위에 상륜 13층이 올려져 있다(도 6, 도 6-1).

요컨대 중부 자바에서 7세기 후반 무렵 13층 불탑의 건립을 설하는 『열반경후분』이 먼저 전해졌으며, 그 후 건립된 보로부두르대탑에 13층의 상륜을 갖는 전단좌불탑이 새겨진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대 양자 사이의 친연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다. 이제 13층탑은 『열반경후분』이라는 佛說의 권위를 가짐으로써, 해상 루트를 이용하는 구법승들에 의해 동아시아 불교권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29 干潟 竜祥, 『Barabudur大塔廻廊の浮彫と華嚴經入法界品』, 『印度學佛教學研究』 8권 1호(1960), pp. 366-360; Ryusho Hikata, Dr. Litt, 『Gaṇḍavyūha and the Reliefs of Barabudur-Galleries(ハラブドゥール廻廊彫刻と華嚴經入法界品)』, 『中野教授古稀記念論文集』(和歌山縣: 高野山大學, 1960), pp. 1-50. 특히 이 글의 pp. 13-38 <Gaṇḍavyūha-Text and Barabudur-Reliefs>에 원전과 부조 및 관련 연구 성과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30 實叉難陀 譯, 『大方廣佛華嚴經』 68 入法界品(T.10, 366a:25-b:3); 般若 譯, 『大方廣佛華嚴經』 16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T.10, 732a:4-b:20).

2. 동아시아의 13층탑 조성 사례

1) 중국과 일본의 13층탑

『열반경후분』 전래 이전에도 13층탑은 세워졌을 것이다. 다만 『열반경후분』이 장안에 전해지고 관찬 經錄에 등록되는 7세기 후반부터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먼저 주목할 탑은 정토종 승려 善導의 탑이다. 『實際寺隆闡大法師碑銘』(743)에 따르면, 선도가 681년 입적하자, 그 제자인 懷憚이 스승을 장안 종남산 기슭에 안장하고 그 옆에 사원(나중에 香積寺라 이름)을 세우면서 13층 靈塔을 세웠다고 한다.³¹ 이것이 장안에 건립된 가장 이른 시기의 13층탑으로 현재 11층까지 남아있다. 또 하나는 中宗이 706년에 입적한 大通禪師 神秀를 위하여 송악 남쪽 輔山의 정상에 세운 13층 부도이다.³² 다만 이들 13층탑이 『열반경후분』에 근거하여 세워졌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명백히 『열반경후분』에 근거하였다고 밝혀진 경우는, 8세기 중반에 축조된 다음의 두 사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85년 발굴된 陝西省 臨潼 慶山寺의 사리탑 地宮이다. 사리탑비에 따르면, 이 지궁은 開元 29년(741)에 조성된 것이다.³³ 정남향을 하고 있는 지궁의 북, 동, 서의 세 벽면에 열반도가 그려져 있는데, 『열반경후분』에 나오는 석존 입멸 직후의 내용과 일치한다.³⁴ 또 다른 사례는 大曆 11년(776) 개착된 돈황 막고굴 제148굴이다. 이 굴의 남벽에서 시작하여 서벽, 북벽 순으로 열반경변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실의 「大唐隴西李府君修功德碑」는 소의경전이 『열반경후분』임을 밝혔다.³⁵ 다만 아쉽게도 이 두 벽화에서 13층탑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 승려들의 저술에서 『열반경후분』의 13층탑 관련 문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후기 들어가서였다. 공교롭게도 13층탑을 언급한 당대 천태종의 湛然³⁶과 그 제자 明曠,³⁷ 송대 천태종의 知禮³⁸와 계율종의 元照,³⁹ 남송의 교학승 法雲⁴⁰ 등은, 하나같이 천태학의 세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일본 13층탑의 효시로 알려진 나라(奈良) 담산신사(談山神社)의 13층목탑은, 후대 문헌에서

31 『金石萃編』 권86; 『全唐文』 권916 「實際寺故寺主懷憚奉敕贈隆闡大法師碑銘」, “於寺院造大窣堵坡, 塔週廻二百步, 直上一十三級.”

32 李邕, 「嵩嶽寺碑」(『嵩書』 권20), “中宗孝和皇帝, 詔於其頂, 追爲大通秀禪師, 造十三級浮圖.”

33 龐燾, 「唐慶山寺舍利塔碑文校注全譯」, 『文博』 1988年 2期, p. 19, pp. 35-40.

34 楊效俊, 「臨潼慶山寺舍利地宮壁畫試析」, 『文博』 2011年 3期, pp. 88-94.

35 外山 潔, 「敦煌148窟の涅槃變相圖について」, 『美學美術史論集』 14(2002), pp. 43-69.

36 湛然, 『法華文句記』 5中(T.34, 243c:19-20).

37 明曠 刪補, 「天台菩薩戒疏」 下(T.40, 598a:9-10).

38 四明知禮, 『金光明經文句記』 6上(T.39, p.154c:2-5).

39 元照, 「四分律行事鈔資持記」 下4 (T.40, 413a:11-12).

40 法雲 篇, 「翻譯名義集」 7 寺塔壇幢篇(T.54, p.1168a:13-19).

입당유학승인 定慧가 678년 귀국한 후 선친인 藤原鎌足の 무덤을 유훈에 따라 多武峯으로 이장하고 그 위에 13층탑을 세웠는 바, 그 탑은 중국 淸涼山 寶池院의 탑을 본뜬 것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탑은 1532년에 중수한 것이어서, 창건 당시부터 13층탑이었는지 불확실하다.⁴¹ 다만 1층에 비하여 2층~13층은 밀첨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통일신라기에 세워진 경주 정혜사지13층석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통일신라~고려의 13층탑

한국 역사상 최초의 13층탑은, 『삼국사기』 경덕왕 14년(755) 기사에 보이는 ‘망덕사의 높이 13층 목조 쌍탑’이다.⁴² 망덕사는 神文王이 685년에 당 황제를 위하여 사천왕사 남쪽에 세운 절이므로⁴³, 망덕사 13층쌍탑은 685년 이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양식에 대해서는 경주 안강에 있는 정혜사지13층석탑이 비교되곤 한다. 정혜사지13층석탑은 통일신라기로 편년되는 탑으로, 1층 탑신에 비하여 2층 이상은 대폭 체감되어서 밀첨식에 가깝다.⁴⁴ 이러한 양식은 앞서 언급한 일본 談山神社의 13층목탑에서도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상의 두 탑만이 통일신라시기의 13층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반경후분』에 근거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열반경후분』의 유통이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이다. 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良原의 『大般涅槃經後分疏』 1권과 思孝의 『大般涅槃經後分節要』 1권이 등록되었다.⁴⁵ 또 재조대장경 率함에 ‘大般涅槃經’의 이름으로 『열반경후분』이 실려 있다.⁴⁶ 이로 보아 고려불교계에서 『열반경후분』이 유통된 것은 분명하다.

고려시대 13층탑 조성의 배경으로서 고려와 송의 교류는 유의할 만하다. 1015년 송에 사행간 郭元은 眞宗의 명으로 汴京 開寶寺를 방문하였을 때, 송의 관료와 함께 개보사탑에 올라서 거란에 맞선 양국의 結好를 의논하였다고 한다.⁴⁷ 개보사탑은 송 태종의 명으로 端拱 2년(989)에 도성 내 황실

41 關野 貞, 「談山神社十三重塔」, 『建築雜誌』 231(1906), pp. 160-163 및 奈良縣教育委員會, 『重要文化財談山神社塔婆修理工事報告書』(1966), pp. 3-7 참조.

42 『三國史記』 권9 경덕왕 14년 춘, “望德寺塔動(唐令狐澄新羅國記曰 其國爲唐 立此寺 故以爲名. 兩塔相對 高十三層 忽震動開合 如欲傾倒者 數日. 其年祿山亂, 疑其應也.)” 사실 ‘新羅國記’의 찬자는 768년 책봉사 歸崇敬의 종사관으로 신라에 온 願愔이다. 令狐澄은 9세기 후반 사람으로서 그의 『貞陵遺事』에서 ‘新羅國記’를 인용하였을 따름이다. 岡田英弘, 「新羅國記と大中遺事について」, 『朝鮮學報』 2(1951) 참조.

43 『三國史記』 권8 신문왕 5년 하 4월.

44 황세옥, 「망덕사지 동·서 13층목탑과 정혜사지13층 석탑의 상관적 고찰—형태 및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2), pp. 111-122; 이순영, 「慶州 淨惠寺址十三層石塔의 樣式과 特徵」, 『동악미술사학』 13(2012), pp. 97-118.

45 『新編諸宗教藏總錄』 1(韓佛 4, 683a:5-6).

46 『大藏目錄』 上(『高麗大藏經』 1205冊, K1405), ‘率函……大般涅槃經 二卷. 大唐 南海 波凌國 沙門 若那跋陀羅 譯.’

47 『高麗史節要』 권3 顯宗 7년(1016), “春正月……郭元還自宋……勅元遊開寶寺, 密使館伴員外郎張師德開諭. 師德與元登塔, 從容謂曰, “今京都高屋大廈總是軍營, 今陛下一統寰海, 猶且養卒, 日令習戰以備北方. 天子猶且如此, 況貴國與之連



도 7. 개보사 8각13층 전탑, 1046년
건립, 하남성 개봉시 소재



도 8. 묘향산 보현사 8각13층석탑, 1909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158)

원찰인 개보사 경내에 8각11층의 목탑으로 창건되었다.⁴⁸ 이 탑은 도성 안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는데,⁴⁹ 慶曆 4년(1044)에 화재로 소실되었다.⁵⁰ 그래서 景祐 원년(1049)에 8각13층, 높이 360척의 철색 유리전탑으로 중건하였는 바,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도 7).⁵¹ 그러므로 광원이 올라본 개보사탑은 불타기 이전의 11층 목탑이었지만, 나중에 중건된 개보사 13층탑을 고려사절단이 참배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개보사탑과 양식상 근사한 탑은 후술할 보현사의 8각13층석탑이다(도 8).

한편 義天은 1085년 가을 汴京에서 杭州로 여행하는 도중에 泗州 普照王寺를 들러 친형인 宣宗의 생신재를 올렸으며,⁵² 아울러 송 황실에서 숭배하는 僧伽大師의 탑에 참배하였다.⁵³ 승가대사탑은 710년 서역 출신의 神異僧 승가대사가 입적하자 당 中宗이 그를 위하여 칙명으로 건립한 탑이다.⁵⁴ 나중에 韓愈는 澄觀이 중건하였다는 높이 300척에 달하는 승가대사탑을 참배하고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⁵⁵ 정관은 화엄종 4조로서 의천의 화엄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한편 의천보다

境, 結好息民, 是遠圖也.”

48 『宋史』 권5 本紀5 太宗 端拱 2년 8월 癸亥; 『佛祖統紀』 43, 法運通塞志(T.49, 400b:4-6).

49 歐陽修, 『歸田錄』, “開寶寺塔在京師, 諸塔中最高.”

50 『宋史』 권63 五行志16, “(慶曆 四年) 六月 丁未, 開寶寺靈感塔災.”

51 開寶寺塔의 연혁에 대하여는 明代에 편찬된 『汴京遺蹟志』 권10 寺觀 上方寺條 및 開寶寺條 참조.

52 『大覺國師文集』 14 「大宋普照王寺本國王生晨齋疏」(韓佛 4, 551b:8).

53 『大覺國師文集外集』 12 「靈通寺大覺國師碑」(韓佛 4, p.593b:20-21), “師適末時 思想禮僧伽塔 上有光明 如燈火.”

54 清 俞樾, 『茶香室續鈔』 권2, 「滇中地勢極高」, “泗州塔一十三級, 每一級高一丈.”

55 韓愈, 「送僧澄觀」, 『韓昌黎詩集編年箋注』 권2 [□云; 澄觀建僧伽塔於泗州 以詩語詳之, 公貞元十六年(799, 덕종 15)秋, 在洛陽作.]

앞서 1072년 일본 승려 成尋이 승가대사탑을 참배하고 탑의 외관과 내부에 대하여 상세한 견문기를 남겼다. 그에 따르면 탑의 편액은 ‘雍熙之塔’이며, 높이는 8각13층이었다.⁵⁶ 雍熙는 송 태종의 두 번째 연호이므로, 의천이 참배한 탑은 송 태종이 칙명으로 증건한 8각13층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가 북송과 교류하는 동안 고려의 사절이나 승려들이 송 황실이 세운 13층탑들을 참배하면서, 13층탑 양식이 고려로 전해졌을 개연성은 농후하다. 고려시대 13층탑의 가장 이른 사례는 1078년에 문종이 황금으로 주조하여 홍왕사에 봉안한 13층탑이다.⁵⁷ 이를 필두로 고려 시대의 13층탑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개성 회경전 13층금탑(1089년)⁵⁸ 또는 개성 국청사 13층금탑(1105년)⁵⁹, 안동 용수사 13층청석탑(1181년 이전)⁶⁰, 금강산 유점사 13층청석탑(1188년)⁶¹, 천안 개천사 13층청석탑(1214년)⁶², 개성 홍왕사 13층금탑(1223년)⁶³, 묘향산 보현사 8각13층석탑(고려 후기)⁶⁴, 공주 마곡사 5층석탑 상륜부의 금동보탑의 13층 상륜(14세기 전반)⁶⁵, 풍덕 경천사 13층석탑(1348년) 등이 있다.

13층탑은 우리나라 탑 가운데 층수가 가장 높은 탑인데, 고려시대에 적지 않은 13층탑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원각사탑의 모델인 경천사탑은 층수만 13층일 뿐 아니라, 탑신부 제1층~제3층의

56 『參天台五臺山記』 3(『大日本佛教全書』115, 55c:5-6). 한편 후대 문헌에서는 太平興國 7년(982)에 칙명으로 13층탑을 증건하였다고도 한다(顧炎武, 『肇域志』 권6 泗州, 大聖寺靈瑞塔 참조).

57 『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32년 7월, “是月, 興王寺金塔成. 以銀爲裏, 金爲表. 銀四百二十七斤, 金一百四十四斤.”

58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6년 10월 戊午, “己巳, 置新鑄十三層黃金塔 于會慶殿, 設慶讚會.”

59 『高麗史』 권12 世家12 肅宗 10년 3월 癸卯, “王如國清寺, 置仁睿太后願成金塔.” 고유섭은 선종이 조성한 탑과 속종이 안치한 탑이 같은 탑이라고 보았다.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서울: 乙酉文化社, 1948), p. 200.

60 崔詵 찬(1181), 『龍壽寺開創記』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 1986), pp. 653-656], “(廓心) 奉先師之遺囑, 立經律論藏及十三層青石塔一座.”

61 懶隱保郁, 1871 『金剛山楡岾寺續寺蹟記』, 『楡岾寺本末寺誌』(성남: 아세아문화사, 1979), p. 50, “庭塔本是 大定二十八年戊申, 道人孝初·文素, 鳩工聚財, 創造十三層青石塔. 癸酉火後, 凋落殊甚, 大禪師性柔, 志欲再建, 告于孝寧大君. 大君然之, 施財請工. 天順元年 丁丑始役, 至辛巳春告完, 依舊十三層青石塔也.”

62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24 『開天寺青石塔記銘』, “師之高弟子玄規……遂立梵所謂窣堵婆者, 悉用青石爲之展轉盤瓦. 凡十有三級……時皇上卽祚之元年某月日也.”

63 『高麗史』 권129 列傳42 崔忠獻 附崔怡, “高宗十年, 出黃金二百斤, 造十三層塔及花瓶, 置興王寺.” 이 탑은 앞서 문종이 조성한 금탑이 소실되어서 崔瑀가 새로 금탑을 주조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64 國立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解説集』 I 石造物編(1997), p. 19, 도 1-3, 1-50. 보현사 만세루 앞에 있는 9층석탑은 초층 탑신의 명문에 重熙 13년(1044) 건립이라고 하였는데, 13층석탑은 양식상 이보다 후대 건립으로 추정된다. 關野貞, 『朝鮮美術史』, 『朝鮮史講座 特別講義』(1932), p. 128.

65 麻谷寺 오층석탑 상륜부의 금동보탑에 대하여는 정은우,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금동보탑 연구』, 『百濟文化』 52(2015) 및 嚴基杓, 『公州 麻谷寺 五層石塔의 건립 시기와 미술사적 의의』, 『文化史學』 52(2019) 참조. 한편 금동보탑에 보이는 라마 양식의 전형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1279년 북경 妙應寺에 세운 白塔이다. 이 탑 역시 상륜이 13층으로 되어 있는 바, 좀더 자세한 것은 黃春和, 『阿尼哥与元代佛教藝術』, 『五臺山研究』(1993年 第3期) 및 張連城, 『阿尼哥与白塔寺』, 『文史知識』(2008年 第3期) 참조.



도 9. 마곡사 5층석탑의 상륜부, 라마식 금탑의 13층 상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도 9-1, 도 9의 세부

사방과 제4층의 남면에 도합 13佛會의 편액이 달려있는데⁶⁶, 탑신부 10층에 도합 40불회가 부조된 가운데 편액은 오로지 13회만 달려있다. 공교롭게도 원각사탑에 봉안한 신역 원각경은 모두 13章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당시 불교도들이 숫자 '13'에 특별하면서도 불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시사한다.

3) 숫자 '13'의 불교적 함의

인도식 복발탑에서 층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相輪이다. 상륜은 인도 고대 문화에서 王者의 상징인 傘蓋[chattrā]에서 유래하므로, 상륜의 층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을 조성한 발원자, 또는 탑 주인의 공의 격이 존귀함을 뜻한다. 그중에서도 카니시카대탑에 보이는 상륜 13층에서 '13'은 인도 고대인들의 우주관인 十三天에서 유래하며, 불교에서는 수행의 13단계[地]를 상징한다.⁶⁷

송 초에 道誠은 『석씨요람』에서 불탑을 13층으로 하는 까닭은 12인연을 초월하였음을 상징한다고 하였는데,⁶⁸ 한역불교권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인식이 널리 통용된 듯하다. 우리나라도 후대 자료이기는 하지만, 조선 중기 懶庵眞一이 편찬한 『釋門家禮抄』(1631)와,⁶⁹ 覺性이 편찬한 『釋門喪儀抄』

66 高裕燮, 『扶蘇山 敬天寺塔』, 『高麗時報』 1940; 高裕燮, 『松都古蹟』(서울: 博文出版社, 1946), pp. 182-184; 禹貞相, 『圓覺寺塔婆의 思想의 研究—특히 十三會에 對하여—』, 『東國思想』 1(1958), pp. 47-109.

67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242-243, pp. 367-368.

68 道誠集, 『釋氏要覽』 下(T.54, 309a:28-29), “辟支佛十一級 表未超無明一支故, 佛塔十三級 表超十二因緣故.”

69 『釋門家禮抄』 下(ABC, H0163 v8, p.285b:7).

(1636)는 모두 『석씨요람』의 설을 받아들였다.

한편 중국 불탑에서 13층을 13천이라고도 부른 것은 직접적으로는 티벳 불교의 영향이다. 앞서 마곡사 5층석탑의 상륜부를 장식하는 라마식 금동보탑에서도 보이듯이(도 9, 도 9-1), 티벳 불탑에서 흔하게 보이는 상륜 13층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13단계를 상징한다고 여겨진다.⁷⁰ 불탑의 의미를 설하는 대표적인 티벳 경전은 『制多部分律所出經』인데, 이 경전 역시 13개의 상륜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⁷¹ 홍미롭게도 13세기에 편찬된 『西藏大藏經』에는 『열반경후분』의 티벳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⁷²

13층탑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또 하나의 불교문헌은 『釋氏源流』이다. 명나라 승려 寶成이 주도하여 1422년에 편찬한 『석씨원류』 2권은, 글과 그림을 짝지워 석존의 생애를 정리하였다. 이 문헌은 명과 조선 후기의 佛傳圖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조선시대 판본으로 成化本(1486)을 모본으로 하는 불암사본(1673년)과, 大興隆寺本(1486-1535)을 모본으로 하는 선운사본(1711)이 현재 전해진다.⁷³ 그 중에서 권2 「造塔法式」은 『열반경후분』에서 불탑 건립 관련한 석존의 유훈을 인용하였다. 홍미롭게도 두 판본 모두 텍스트에서는 13층탑이라 하면서도, 圖解에서는 11층탑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관념으로서의 13층탑과 건축물로서의 13층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Ⅲ. 원각사13층석탑의 의미체계

세조 대 모든 佛事의 토대는 세조 자신의 崇佛이다. 주지하듯이 세종은 집권 후반기에 불교에 많이 의지하였다. 그런 부왕의 영향으로 수양대군 시절의 세조는 『釋譜詳節』을 찬술하는 등 불교에 심취하였으며, 집권 이후에 측근과 나눈 대화에서도 스스로 ‘好佛의 人主’임을 자인하였다.⁷⁴ 세조가 시대정신에 역행하면서 도성에 불탑을 건립한 데에 불교적 심성이 작용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70 Wong Wah Sang, “Stupa, Pagoda and Chorten: origin and meaning of Buddhist Architecture,” *The 4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e*(2014), p. 15. (<https://www.atiner.gr/papers/ARC2014-1094.pdf>).

71 이 경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역출한 것으로, 여기서는 Narthang本の 英譯을 참조하였다[Pema Dorjee, *Stupa and Its Technology: A Tibeto-Buddhist Perspective*(New Delhi and Delhi: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and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1996), pp. 121-126.] 한편 북경판 『西藏大藏經』 권79(西藏大藏經研究會 影印, 1957), 185b:4-189b:7에도 동일한 경전이 수록되어 있는 바, 한자 명칭은 이를 따랐다.

72 『西藏大藏經』(北京版) 31(西藏大藏經研究會 影印, 1956), 321a:5-355a:5.

73 『釋氏源流』의 성립과 조선으로의 유통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이영종, 「『釋氏源流』와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및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 11(1998)이 있다.

74 『세조실록』 권15, 세조 5년 2월 8일(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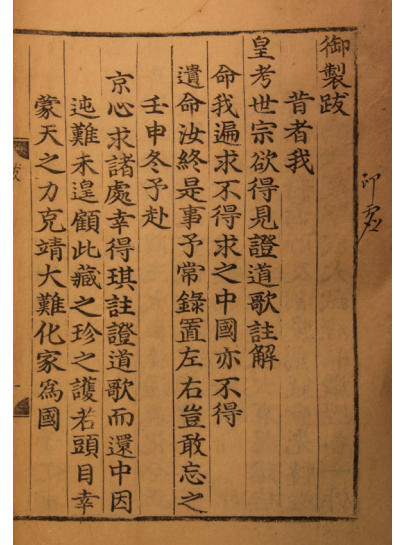
1. 세조의 『翻譯名義集』과 『圓覺經』 중시

1) 『翻譯名義集』의 간행과 유통

앞장에서 세조의 13층탑 건립의 경전적 배경으로 『열반경후분』을 지목하고 그 유통 및 13층 조성의 사례를 살펴해보았다. 그런데 그가 1446년에 찬술한 『석보상절』이나, 1459년에 『月印千江之曲』과 합쳐서 편찬한 『月印釋譜』에서 석존 입멸 후의 사리탑 건립을 언급하면서 주로 『釋迦譜』를 인용하여 寶塔이라고만 하였을 뿐 ‘13층’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⁷⁵

그렇다면 세조는 원각사13층석탑을 건립할 무렵 『열반경후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주목할 문헌이 『翻譯名義集』이다. 1457년 세조는 요절한懿敬世子[德宗]의 명복을 빌고자 대장경과 더불어 다수의 불전을 印成, 寫成, 편찬하는 대규모 불사를 일으켰는데, 그중에 『번역명의집』 7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간행한 『번역명의집』 말미에는 세조의 어제발을 비롯하여 측근 6인의 발문이 남아있다.⁷⁶ 발문에 따르면, 『번역명의집』은 세상에서 전해지지 않는 것인데, 內藏에서 특별히 한 질을 꺼내서 인성하였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수양대군 시절 세조는 고명사은사를 차칭하여 1452년 10월 북경에 가서 이듬해 2월에 귀국하였다. 위의 御製跋에 따르면, 그는 공무 수행과 별도로, 세종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였고 그래서 수양대군에게 遺命까지 남겼던 『證道歌』에 관한 諸家の註를 북경에서 비로소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도 10). 따라서 『번역명의집』도 이때 북경에서 입수하여 내장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번역명의집』은 말미에 부친 『行業記』(1301년)로 보아 14세기 이후 비로소 유통된 듯하다. 經錄에 따르면 명초 영락 연간에 재간된 이른바 洪武南藏(1372-1398)에 처음 入藏되었으며, 이어서 永樂南藏과 永樂北藏(1410-1419)에 차례로 수록되었다.⁷⁷ 세조가 북경에서 입수하였을 『번역명의집』의 저



도 10. 『번역명의집』 말미의 세조어제발(British Library 소장)

75 姜順愛, 「새로 發見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5에 관한 연구—그 構成과 底經을 중심으로—」, 『書誌學報』 16(1998); 姜順愛, 「長興 寶林寺藏 初槧本 『月印釋譜』 卷25에 관한 연구」, 『月印釋譜 卷二十五』(성남: 아세아문화사, 2005), pp. 18-25, pp. 38-47.

76 필자가 2013년에 조사한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소장본(金迢根 舊藏)에는 말미에 天順 元年(1457)의 御製跋을 비롯하여 우의정 姜孟卿, 좌찬성 申叔舟, 이조판서 韓明澄, 도승지 曹錫文, 우승지 韓繼美, 첨지중추원사 金守溫, 세자우필선 任元濬의 발문이 남아있다. 아쉽게도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14권 8책(보물)에는 간기가 없다.

77 童瑋 編, 『二十二種大藏經通檢』(北京: 中華書局出版, 1997), p. 14, pp. 244-245.

본과 관련하여,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地藏菩薩本願經』의 저본이 홍무남장 수록본⁷⁸임은 참조할 만하다. 구체적인 저본 문제는 명초에 편찬된 3종 대장경의 국내 유통과 관련하여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세조가 일본과 대마도와 류구에 외교적 선물로 다량의 佛書를 보낼 때마다 『번역명의집』을 빠뜨리지 않았음⁷⁹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번역명의집』은 남송의 승려 法雲이 한역경전에 보이는 산스크리트어 어휘를 분류하여 해설한 일종의 용어사전이다. 그 마지막 권7 말미의 ‘窣堵波’ 항목에서 앞서 언급한 『열반경후분』, 『십이인연경』, 『마하승기율』의 관련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답을 총 정리해두었다.⁸⁰ 『석보상절』을 찬술할 정도로 불교에 조예가 있었던 세조가 불교용어집인 『번역명의집』, 그중에서도 말미의 ‘술도파’의 내용 및 거기에 인용된 『열반경후분』의 13층탑 구절을 원각사탑 건립 당시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요컨대 『번역명의집』이야말로 『열반경후분』과 세조를 잇는 연결고리라 하겠다.

2) 『圓覺經』 이해와 간행

『열반경후분』이 건축물로서의 13층탑 건립의 경전적 근거라면, 『원각경』은 세조대 13층탑 건립의 이념을 상징한다 하겠다. 세조가 집권 10년을 맞이하여 대규모의 佛事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孝寧大君이 檜巖寺에서 『원각경』 관련 불사를 할 때 일어났던 佛舍利 分身의 기적에서 불사의 정당성을 찾았다.⁸¹ 이 이적을 계기로 한성 도심의 폐사 興福寺를 중건하고 이름을 원각사라 하였으며, 완성된 원각사탑에는 대장경 가운데 유일하게 ‘신역 원각경’을 봉안하였으며, 앞서 원각사에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자신이 친히 口誅한 『원각경』을 언해 간행하였다. 그렇다면 세조는 왜 이토록 『원각경』을 중시하였는가?

『원각경』의 정식 명칭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으로서 복인도 罽賓國 출신의 佛陀多羅가 693년에 한역하였다고 전하지만, 당시부터 이미 번역자와 번역 시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듯하다. 이 경을 최초로 등재한 경록은 730년 편찬의 『開元釋教錄』이다.⁸² 經題에서 시사하듯이, 석가모니가 법왕의 원각, 즉 생사가 곧 열반이고 윤회전생이 곧 해탈임을 설한다. 그런데 경의 말미에서 佛滅 이후를 살아가는 말세의 중생들이 이 경을 수지하고 수행한다면 점차 佛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듯이,⁸³ 말법관이 고조되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여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9세기 전반 화엄종 5조 圭峰宗密이 『원각경』을 禪教一致의 관점에서 열정

78 宋柳娜, 「朝鮮 初期 刊行 『地藏菩薩本願經』의 書誌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pp. 50-52.

79 『世祖實錄』 권17 세조 5년 8월 23일(임신); 권24 세조 7년 4월 22일(임진); 권27 세조 8년 정월 10일(을사), 16일(신해); 권33 세조 10년 7월 23일(갑술); 권43 세조 13년 8월 14일(정미), 17일(경술).

80 『翻譯名義集』 7(T.54, 1168a:6-27).

81 孝寧大君의 불사를 다룬 근래의 연구로는 이봉춘, 「孝寧大君의 信佛과 조선전기 불교」, 『불교문화연구』 7-1(2006), pp. 89-120이 있다.

82 『원각경』의 한역과 유전에 대해서는 小野玄妙 編纂, 『佛書解説大辞典』(重版)(東京: 大東出版社, 1968), pp. 281a-283b 참조.

83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T.17, 921c:22-23), “若諸菩薩及末世衆生 依此修行, 漸次增進 至於佛地.”

적으로 주해하고 현창하였다는 사실이다.⁸⁴ 『大乘起信論』이 元曉에 의해 대승불교의 양대 사조인 中觀思想과 瑜伽/唯識思想을 통합하는 단일경전으로 주목받았듯이, 『원각경』은 宗密에 의해 敎와 禪을 통합하는 단일경전으로 주목받았다. 고려 불교계가 『원각경』과 더불어 종밀의 주해서를 주목한 까닭은 실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원각경』과 그 주해본의 유통에 대해서는 근래 서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미루기로 하고,⁸⁵ 본고는 논지 전개에 필요한 정도에서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늦어도 고려 전기에는 유행 하여서, 義天은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의천록)에 그 당시 유행하던 『원각경』 주석서 18부의 목록을 수록하였는데, 그중 9부가 종밀의 저술이다. 여기에는 도송 당시 의천이 배운 晉水淨源의 『圓覺經略本修證義』 1권도 실렸는데, 이는 종밀의 『圓覺經道場修證義』 18권을 요약한 것이다.⁸⁶ 의천은 종밀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종밀의 略疏에 근거하여 『원각경』을 강한 사실은 유념할 만하다.⁸⁷ 고려 후기 修禪社의 1세 知訥 또한 정혜결사를 개창하면서 말세중생을 위한 비결로서 『원각경』을 주목하였으며, 종밀의 주소를 종종 인용하였다.⁸⁸ 지눌의 후계자 慧諶도 『원각경』의 13장을 찬미하는 偈頌을 남겼다.⁸⁹

역설적이게도 여말선초의 유불교체기에 불교 승려만이 아니라 유교 지식인들도 『원각경』에 관심을 갖고 읽었다. 불교를 옹호하는 자나 비판하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방대한 불교교학과 禪을 통합적으로 간명하게 정리한 단일경전이였다. 『원각경』은 그러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말하자면 팔만대장경 전체를 대변하는 단일경전이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역대의 호불군주들이 대담을 건립한 다음 담 안에 석존의 遺體를 상징하는 사리와 더불어 법사리로서 석존의 말씀을 모은 대장경을 봉안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였다. 그런데 세조가 원각사 13층탑에 봉안한 것은 ‘분신사리’와 ‘신역 원각경’이 전부였다. 중국의 목탑이나 전탑과 달리 원각사탑은 석탑이기 때문에 대장경을 봉안할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대장경을 상징하는 ‘신역 원각경’을 봉안하였던 것이다.

세조는 원각사 창건에 앞서 1464년 간경도감에서 涵虛堂 得通이 지은 『圓覺經說誼』 3권을 조조

84 『圓覺經』에 대한 宗密의 주석서들을, 8-9세기 대립하고 있던 교와 선의 화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曹潤鎬, 「『圓覺經』と宗密の『圓覺思想』」 東京大 박사학위논문(1998), pp. 157-166; 조운호, 「종밀의 원각경주석서에서 교와 선의 관계론」, 『哲學研究』157(2021), pp. 159-181이 있다.

85 金美京·姜順愛, 「『圓覺經』版本이 系統과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46(2010), pp. 329-370 참조.

86 『新編諸宗教藏總錄』 권1(韓佛 4, 685a:9-b:4).

87 『大覺國師文集』 권3 「講圓覺經發辭」 2수(韓佛 4, 531a:18-532a:14).

88 『勸修定慧結社文』(韓佛 4, 700b:12-13, 702b:4-5),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같은 책, 762b:22-23). 여기에 대하여는 A. Charles Muller translated,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p. 20-22 참조.

89 『無衣子詩集』 下 「混元上人請圓覺經讚」(韓佛 6, pp. 57c:7-58b:1).



도 11. 가람본 『원각경언해』 권1(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하였다.⁹⁰ 그리고 이듬해 『원각경언해』를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조가 원각사탑에 법사리로서 봉안한 ‘신역 원각경’일 것이다. 다만 『원각경언해』의 저본이 종밀의 『圓覺經大疏鈔』라는 기존의 이해는 명백한 착오이다. 『원각경언해』는 종밀의 『圓覺經略疏』를 언해한 것이며 여기에 『圓覺經略疏鈔』의 원문을 병기하였다(도 11).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천이 『원각경』을 강할 때 대본도 『원각경약소』였다. 이는 한국불교사에서 『원각경』 이해가 『원각경약소』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찍이 李崇寧은 그가 舊藏하던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下 3-2에는 제2행에 ‘御定口訣’, 제3행에 ‘慧覺尊者 臣僧 信眉, 孝寧大君 臣補, 仁順府尹 臣韓繼禧等譯’이 표기되었는데, 나중에 大提閣에서 영인한 중간본

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였다.⁹¹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조대 『원각경』 관련 佛事에는 불교 교단에서 慧覺尊者 信眉가 깊이 관여하였는데, 그는 바로 함허당 득통의 제자이자, 「원각사비」를 비롯한 각종 불교 기문을 도맡아 찬술한 金守溫의 家兄이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지은 「圓覺寺 御製誠文」에는 前演慶寺 주지 대선사 弘濬이 衆首였다고 하는데,⁹² 홍준 또한 함허당의 제자이다. 이처럼 세조대 각종 佛事의 이념적 중심점인 『원각경』의 유통은 득통의 문도가 주도하였다.

2. 13층탑의 정치적 상징성

만년에 이르러 세조는 세자에게, 자신은 부처를 숭상하여 적지 않은 불사를 일으켰지만, 세자는 자신의 숭불책을 계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⁹³ 이는 佛事에 대한 세조와 세자의 처지가 달랐음을 역설한다. 세조는 유혈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였는데, 이는 유교 정치이념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반면 세자는 유교 정치이념에 따라 왕위계승이 예정된 자였다. 그래서 세조는 자신의 집

90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p. 165. 기화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朴海鎔, 「己和의 佛教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을 참조 바람.

91 李崇寧, 「信眉의 譯經事業에 關한 研究」,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25(1986), pp. 23-27. 한편 신미와 관련해서는 李昊榮, 「僧 信眉에 대하여」, 『史學志』 10(1976) 및 閔德植, 「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 『忠北史學』 24(2010)를 참조하기 바람.

92 「圓覺寺 御製誠文」, 李順幸 編, 『淸權輯遺』(重刊本) 上 (서울: 淸權祠, 1971), pp. 51-53.

93 『世祖實錄』 권31, 세조 9년 10월 11일(병신).

권과 즉위를 유교가 아닌 다른 이념, 자신이 평소 숭상하던 불교로써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말하자면 원각사13층석탑은 정치적 상징조작으로서 건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세조는 왜 13층탑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건립하고자 하였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세키노 이래로 선행 연구자들은 원각사탑이 경천사탑의 모작임을 반복하여 지적하였다. 나아가 高裕燮은 조선 초기 왕실의 원찰인 경천사탑, 개경사탑[原선흥사탑], 연경사탑[原흥교사탑], 원각사탑, 신륵사탑, 상원사탑의 부조가 보여주는 친연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⁹⁴ 그리고 蘇在龜는 원각사탑은 왜 경천사탑을 모방하였는가를 진지하게 되묻고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천사탑, 연경사탑, 원각사탑의 상관성에 다시 주목하였으며, 이들 사원이 왕실의 비호 사찰임을 실증하였다.⁹⁵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되, 분석 대상을 좀더 확장하고 그 상관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음미하고자 한다.

1) 桓祖와 경천사13층대리석탑

경천사탑이 조선 왕실의 비호 사찰이 된 것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였다. 애초에 이성계의 부 李子春[桓祖]의 무덤[定陵]은 그의 고향인 함흥에 있었다. 반면 이성계의 활동 무대는 개경과 한양이었으므로, 가까운 곳에 정릉을 대신할 참배지가 필요하였다. 마침내 그가 찾아낸 곳이 豐德 扶蘇山 자락의 敬天寺였다. 태조는 1394년 4월 환조의 기일을 맞이하여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 가서 환조의 御眞을 봉안한 다음 齋를 베풀고 華嚴三昧懺를 講하게 하였다.⁹⁶ 1397년에 태조는 재차 경천사에 가서 華嚴法席을 베풀어 神德王后의 영을 위로하였다.⁹⁷ 이처럼 조선 건국 직후 경천사가 환조의 진전사원이 되면서, 경천사13층석탑 또한 조선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원각사탑의 직접적인 모델이 경천사탑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해체되어 일본으로 무단 반출된 이래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재건될 때까지 100년 가까이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천사탑에 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탑신부 제1층 정남부터 시계 방향으로 20면에 걸쳐 새겨진 도합 160자의 명문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탁본 일부가 17세기 후반에 편찬한 『大東金石書』에 실려 있다. 탁본에 따르면,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궁정에서 활동하던 晉寧府院君 姜融과 資政院使 高龍鳳이 원 황실과 고려 왕실을 위하여 1348년 경천사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아쉽게도 층수 관련 구절이 훼손되어 읽을 수 없지만, 『大東金石書』의 편찬자는 탁본의 제목을 '敬天寺十三層塔記'라고 명기하였다.⁹⁸

94 高裕燮, 앞의 책(1946), pp. 181-188.

95 蘇在龜, 앞의 논문(1986), pp. 14-18.

96 『太祖實錄』 권5, 태조 3년 4월 29일(무술).

97 『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3월 4일(정사).

98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pp. 263-265의 「2-32 敬天寺十三層塔記」 및 pp. 757-759의 「6-26 敬天寺石塔記」.

13층설을 언급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蔡壽의 『遊松都錄』이다. 채수는 홍문관 應敎로 있던 1477년(성종 8) 3월 송도를 유람할 때 경천사를 방문하고 詩文을 남겼다. 채수는 奇皇后의 원찰이었던 경천사가 화재를 입어 승방 하나만 겨우 남았으며, 뜰 가운데 우뚝 솟은 하얀 석탑이 옥처럼 빛났다고 하면서 매우 정교한 이 탑은 원나라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높이가 13층임을 분명히 하였다.⁹⁹ 이어서 1530년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 『東國輿地勝覽』에서도 경천사탑은 13층탑이라고 밝혔다.¹⁰⁰ 이 무렵까지는 탑에 새겨진 명문에서 '13층'을 언급한 구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13층탑 건립을 언급한 문헌 기록이 경천사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13층설은 開城留守 金堉이 편찬한 개성 지리지 『中京誌』(1648년),¹⁰¹ 실학자 柳馨遠이 편찬한 최초의 사찬 지리지 『東國輿地誌』(1656년),¹⁰² 왕손들인 李俔와 李侃 형제가 편찬한 최초의 금석첩 『大東金石書』(17세기 후반) 등에서 거듭 확인된다. 요컨대 조선 시대 내내 지식인들은 경천사탑이 13층탑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장인들은 경천사13층탑을 '3층의 기단+탑신 10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는가?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불교에서 기단과 탑신을 합하여 층수를 세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장인이 13층탑을 구성하면서 탑신을 10층으로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층설을 따르는 학자들 가운데 당시 경천사가 화엄종 사찰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10층탑 건립의 사상적 배경으로 『화엄경』의 숫자 '10'을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¹⁰³ 물론 경천사탑은 명백히 13층탑이지만, 이례적으로 탑신부를 13층이 아니라 10층으로 구성한 까닭을 『화엄경』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2) 太祖와 개경사석탑

開慶寺는 태종이 태조를 위하여 세운 능사이다. 태조가 1408년 5월에 사망하자, 태종은 양주에 태조의 능자리를 정하고 朴子青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작토록 하였다. 능[건원릉]이 조성되자 태종은 齋宮을 능사로 고쳐 개경사라 이름하고 曹溪宗에 소속시켰다.¹⁰⁴ 그리고 1410년에 개성 동쪽 松林縣

99 『懶齋集』 권1 「遊松都錄」, “戊子……至敬天寺。寺經火, 但存一室。庭中有石塔, 光瑩如玉, 高三十三層, 雕刻十二會相, 窮極精巧, 殆非人力所造。寺乃元奇皇后願刹, 而塔亦中國人所作, 渡海來建于此。當國步艱飢之日, 惑於內寵, 勞民力, 以事無用如此, 元祚之不長宜矣。”; 권2 「敬天寺塔」, “乃元奇皇后所作, 載船越海來造者。凡十三層, 巧奪天眞。”

100 『東國輿地勝覽』 권13, 豐德郡 佛宇 敬天寺.

101 『中京志』 권6 寺刹(京城: 朝鮮光文館, 1915), p. 22, “擎天寺……石塔十三層, 刻十二會相.” 金堉은 序에서, 개성 출신으로 장연 부사를 지낸 曹臣俊이 편찬한 ‘松都雜記’를 참조하고 『東國輿地勝覽』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두었다.

102 『東國輿地誌』 권2, 豐德郡 寺刹 敬天寺.

103 蘇在龜, 앞의 논문(1986), pp. 40-44; 文明大, 「경천사 10층석탑 16불회도 부조상의 연구」, 『講座 美術史』 22(2004), pp. 26-28; 愼銀貞, 「敬天寺十層石塔의 綜合的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pp. 23-24.

104 『太宗實錄』 권16, 태종 8년 무자(1408) 7월 29일(을해);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을묘(1435) 5월 21일(임진);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京畿 楊州都護府 健元陵.

禪興寺의 탑을 개경사로 옮기도록 하였다.¹⁰⁵ 1412년 9월에는 개경사에 가서 절 북쪽에 小室을 지어서 태조로부터 받은 관음상을 봉안토록 하였으며,¹⁰⁶ 10월에는 개경사 주지 省敏의 청원에 따라 경주 백률사의 栴檀觀音像을 개경사로 옮겨 봉안토록 하였다.¹⁰⁷ 이 상은 중국의 궁정화가가 신라에 와서 조성하였다는 이른바 ‘三所觀音’의 하나로 추정된다.¹⁰⁸ 1413년 3월에는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인행하고 5월에 개경사로 수송 봉안하였으며,¹⁰⁹ 1414년 5월 개경사에 법석을 베풀고 대장경을 전경하였다.¹¹⁰ 이처럼 태종은 개경사를 새로 짓되, 절을 장엄하는 주요 성물인 탑과 像과 經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다른 사찰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 재사용하였다.

개경사탑이 원래 있었던 선흥사는 14세기 초부터 문헌에 등장한다.¹¹¹ 독실한 불교도인 權胆이 퇴직 후 만년에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으며,¹¹² 충숙왕은 선흥사 앞에서 격구를 즐겼다고 한다.¹¹³ 牧隱李穡에 따르면, 1347년 왕이 남경을 순행하고 돌아갈 때 백관들이 선흥사 동쪽 교외까지 마중 나와서 어가를 영접하였다고 한다.¹¹⁴ 이 절이 지배층 사이에서 더욱 유명하게 된 계기는 고려 출신의 환관 方臣祐가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나서였다. 李齊賢이 찬술한 「방신우사당비」(1345년 경)에 따르면, 그는 1289년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를 수행하여 원에 건너가서 원 成宗의 모후 裕聖皇后의 신임을 얻어 忙古台로 개명하고 환관으로 복무하다 1330년 퇴직하여 고려로 돌아왔다. 귀국 후 그는 개성 동쪽 송림현의 선흥사를 수리하여 자신의 원찰로 삼았는데, 그 제도가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였다고 한다. 그가 1342년에 재차 부름을 받고 원 조정에 갔다가 1350년 그곳에서 사망하자, 유해를 선흥사 뒤편 언덕에 장사지내고 절 안에 사당을 세웠다.¹¹⁵

조선 초에 卞季良이 선흥사를 둘러보고 읊은 시에는 方氏塔과 이제현이 지은 비가 절에 남아있다고 하였다.¹¹⁶ 그러므로 개경사로 이진한 탑이 바로 ‘방씨탑’ 즉 방신우가 선흥사를 중수하면서 세운 탑임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선흥사탑을 세운 方臣祐와 경천사탑을 세운 高龍鳳(또는 高龍普)은 둘 다 고려 출신의 환관으로서 같은 시기 원나라 황실에서 맹활약하였다. 이는 두 탑이 양식상 친연

105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4월 8일(갑진).

106 『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9월 12일(갑오).

107 『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10월 18일(경오).

108 『三國遺事』 권3 塔像4 三所觀音 栢栗寺 참조.

109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3월 11일(경인), 5월 28일(병오).

110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111 『東國輿地勝覽』 권12 京畿 長湍都護府 古蹟條. 禪興寺는 경기도 장단군 관내에 있었던 사찰이지만, 폐사된 지 오래되고 이제현의 비도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다만 이제현은 方臣祐의 무덤이 절 뒤편 언덕에 있었다고 하며, 골짜기에는 같은 시기에 축조된 全信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崔濬, 『拙菴千百』 권2 「全柏軒墓誌」).

112 『高麗史』 권107 열전20 權胆; 『高麗史節要』 권23, 충선왕 3년 신해 12월.

113 『東史綱目』 제13下, 충숙왕 7년 4월.

114 『牧隱詩藁』 권33 「留都宰相率百官, 郊迎于禪興寺之東, 成均諸生 進歌謠」.

115 李齊賢,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東文選』 권118.

116 『春亭集』 권2 題禪興寺, “牢落禪興寺, 無僧燕子飛, 立庭方氏塔, 橫草樸翁碑.”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원래 개경사는 태조의 건원릉 바로 아래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문종의 顯陵이 서편에 축조되면서 단종 때부터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정희왕후의 교시로 좀더 남쪽 골짜기로 옮겨졌다.¹¹⁷ 그리고 16세기 이후 언젠가 개경사가 폐사되면서 탑도 완전히 잊혀졌다. 절터는 지금의 동구릉 안에서 綏陵과 재실 사이로 추정된다. 한편 1674년 崇陵(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 외청릉과 외백호가 교차하는 곳에 연지를 파고 제방을 쌓았으며 연지로 들어가는 수구에 석교를 놓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돌은 옛 절터에서 버려진 돌들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한다.¹¹⁸ 아마도 이 무렵 개경사 탑도 파괴된 듯하다.

3) 神懿王后와 연경사대리석탑

演慶寺(또는 衍慶寺)는 조선 왕조의 개창자 태조 이성계의 정비 신의왕후 韓씨의 齊陵(지금의 황해북도 개풍군 대련리)을 수호하는 능사이다. 한씨는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하기 직전인 1391년 9월에 병사하였다. 그래서 조선 건국 이듬해 태조가 시호[節妃]와 능호[齊陵]를 내리고,¹¹⁹ 1398년에 신의왕후로 추존하고 진영을 仁昭殿에 봉안하였다.¹²⁰ 이를 이어서 태종은 모후에 대한 불교적인 추숭 사업을 일으켰다. 그는 1399년 定宗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환도하자, 1401년 모후의 진영을 가까운 廣明寺로 옮겨 봉안하였다.¹²¹ 그리고 자신이 즉위하여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간 이듬해 1406년에는 창덕궁 북쪽에 신의왕후의 진영을 모시는 인소전을 새로 공사하면서 아울러 佛堂도 같이 짓도록 하였다.¹²²

강력한 억불책을 추진하던 태종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는 佛事を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아해하는 조정 儒臣들에게 好佛이 아니라 孝의 불사일 뿐이라고 누차 다짐하는 한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기존의 불교 聖物을 적극 재사용하였다.¹²³

신도비 건립과 병행하여 태종은 1409년 8월 제릉의 능사로서 연경사를 개창토록 하고 공사 감독

117 『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楊州牧 佛宇條.

118 『山陵都監儀軌』 권下, “(蓮池)水口石橋, 則以陵內寺刹舊基, 掘去石取用.”; 정해득, 「문헌기록을 통해 본 송릉연지」, 『조선왕릉 연지의 비밀을 찾아서—崇陵蓮池를 중심으로—』(대한문화재연구원 개원 8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2015), pp. 7-20.

119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 9월 18일(경신).

120 『太祖實錄』 권15, 태조 7년 11월 11일(계미).

121 『太宗實錄』 권1, 태종 원년 5월 20일(무신).

122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5월 27일(병진).

123 단적인 사례가 모후를 위한 제릉신도비 건립이었다. 태종은 權近이 왕명으로 찬술한 신도비명을 1404년 비석에 새기게 되는데, 새로 빗돌을 만드는 대신 華藏寺에 있던 靜覺國寺 志謙의 碑(1229년 立)를 갈아서 새겼다고 한다.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2월 18일(기축).

을 禹希烈에게 맡겼다.¹²⁴ 그리고 1410년 4월 낙성법회에서 모후의 명복을 빌고자 『법화경』을 강하였다.¹²⁵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낙성식 이틀 후 사월 초파일에 태종은 명을 내려 海豐郡 興敎寺(지금의 황해북도 개풍군 흥교리 백화산)의 탑을 衍慶寺로 옮겨 세우도록 하였다.¹²⁶

흥교사는 1419년 정종이 厚陵에 안장되면서 비로소 그 능사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1410년 왕명으로 연경사로 이진한 흥교사탑은 누가 언제 세웠는지 알기 어렵다. 연경사 또한 방치된 채 점차 쇠락해져갔는데, 정조대 조정이 논의하여 허물어져가던 제릉의 능사를 중수하였다.¹²⁷ 그 직후인 19세기 초 연경사를 방문하고 남긴 시문에 ‘高麗古塔’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연경사탑은 19세기 초까지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⁸

20세기 전반 고유섭은 연경사탑의 최후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언을 남겼다. 그는 1940년 무렵 開豐郡 上道面의 연경사지를 답사하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절터에 원각사탑과 높이, 너비, 양식이 거의 같은 탑이 있었는데 1919년 경 파괴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시 현지에서 수습한 대리석 탑편들이 원각사탑과 같은 양식으로 상정된다고 보고하였다.¹²⁹ 다행히 고유섭이 수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탑편이 1980년대 중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발견되었는데,¹³⁰ 재발견된 대리석 탑편에는 齊陵에서 출토된 사실이 목서되어 있었다(도 12).



도 12. 제릉 출토 대리 석탑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51775)

4) 世宗과 신륵사다층대리석탑

이상에서 조선 초 역대 국왕의 능사에 건립된 고층 누각형의 대리석탑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신륵사 극락전 앞에 서 있는 석탑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金守溫이 왕명으로 찬술한 『報恩寺記』에는, 英陵의 改葬과 그 능사로서 神勒寺의 중수와 改名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세조는

124 『太宗實錄』 권18, 태종 9년 8월 12일(신해).

125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4월 6일(임인).

126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4월 8일(갑진).

127 『日省錄』 정조 12년 무신 8월 16일(을사).

128 『三溟詩集』 拾遺, 「衍慶寺贈眞上人 寺在豐德齊陵洞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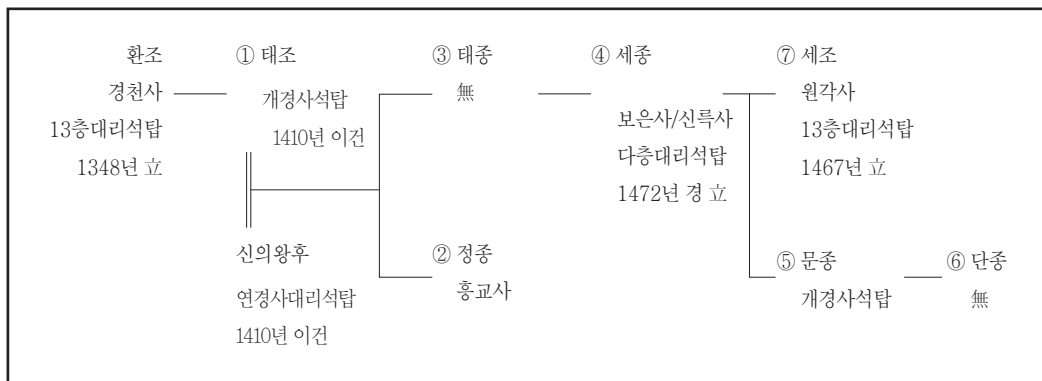
129 高裕燮, 「扶蘇山 敬天寺塔」, 『高麗時報』(1940), 『松都古蹟』(서울: 博文出版社, 1946), pp. 186-187.

130 蘇在龜(1986) 앞의 논문, pp. 14-18 및 〈圖 39. 齊陵出土石塔片(左, 右)〉 참조.

만년에 영릉 곁에 능사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듬해 사망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중에 예종은 원년(1469)에 세종의 능 자체를 廣州에서 여주로 옮겼다. 그리고 성종 3년(1472) 대왕대비는 세조의 유지를 받든다는 명분으로 능사를 건립되되, 韓明澮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절을 새로 짓는 대신 고려 이래의 명찰인 신륵사를 능사로 지정하여 중수하면서 이름을 報恩寺로 고쳤다.¹³¹ 일찍이 세키노는 신륵사 극락보전 앞의 대리석다층탑 또한 이 무렵 세워진 것으로서 애초에 13층이었으리라 추정하였으며, 기반부에 용 조각이 있다는 점에서 원각사탑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¹³²

태조부터 세조까지 역대 국왕 가운데 능사가 없는 경우는 유명으로 능사를 건립하지 말라고 한 태종과,¹³³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 뿐이다. 그리고 개경사는 원래 태조의 건원릉에 딸린 능사였는데, 나중에 문종의 현릉이 조성되면서 현릉의 능사도 겸하게 된 듯하다. 조선 초 왕실의 능사와 그곳에 건립된 석탑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 도표는 세조의 정치적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환조-태조(와 신의왕후)-(태종)-세종으로 이어지는 왕실의 혈통에서 자신이 그 적통임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상징물로서 원각사13층석탑을 조성한 것이다. 다른 탑들이 모두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능사에 건립된 반면, 원각사탑 만큼은 세조 자신이 직접 한성 도심에 세운 까닭이기도 하다.



<표1> 조선초 역대 국왕의 능사와 탑

131 金守溫, 『拭疣集』 권2 「報恩寺重創賜額記」.

132 關野 貞, 앞의 논문(1913), p. 76. 이 역시 세키노는 나중에 7층석탑이라고 수정하였다. 『朝鮮古蹟圖譜』 13(1919), pp. 1914-1916.

133 『慵齋叢話』 권2.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세조가 漢陽 都城 중심에 13층석탑을 세우고 탑에 釋迦舍利와 ‘新譯 圓覺經’을 봉안한 뜻을 세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13층탑의 경전적 배경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특히 필자는 13층탑 건립의 직접적인 소의경전으로서 『大般涅槃經後分』을 최초로 발굴하고, 이 경전이 7세기 후반 중부 자바에서 번역되고 동아시아에서 유통된 사실을 추적하였다. 아울러 13층탑의 기원으로서 이른바 카니시카대탑을 주목하고 동아시아와 한국에서의 13층탑 조성 사례를 예시하였다. 그리고 불교 문헌을 탐색하여 ‘13층’이 깨달음[Buddha]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단계를 상징함을 밝혔다. ‘13’은 불교도에게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신성한 숫자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세조의 원각사13층탑 건립의 불교적 정치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불교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세조가 중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조선에 최초로 유통시킨 『翻譯名義集』과, 그가 최초의 한글 번역에 직접 개입한 『圓覺經』에 주목하였다. 『번역명의집』은 14세기에 유통되기 시작한 불교용어집인데, 세조는 원각사탑을 창건할 무렵 이 문헌을 통하여 13층탑의 소의경전인 『대반열반경 후분』을 접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세조가 대장경 전체를 상징하는 단일경전으로 ‘신역 원각경’을 원각사탑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최초의 한글 번역에 직접 참여한 『원각경언해』임을 밝혔다. 아울러 『원각경언해』의 저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宗密의 『圓覺經大疏鈔』가 아니라 종밀의 또 다른 주석서인 『圓覺經略疏』임을 밝혔다.



도 13. 원각사13층석탑의 현황, 1467년 건립, 현 높이 12m, 서울 달곡공원 소재, 보물



도 14. 경천사13층석탑의 현황, 1348년 건립, 현 높이 13.5m(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본관6753), 국보

마지막으로 원각사탑 건립의 정치적 함의와 관련하여, 조선 초 왕실의 陵寺(또는 眞殿寺院)에 세워진 석탑—敬天寺13層石塔, 開慶寺石塔, 衍慶寺石塔, 神勒寺多層石塔—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조가 자신의 왕위계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징으로서 원각사13층석탑을 건립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요컨대, 세조는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한성 도심에 원각사를 창건하면서 13층석탑을 건립하였다. 13층탑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호불군주 카니시가 대왕이 간다라 도성에 건립하였다는 雀離浮圖에서 기원하는데, 그것에 佛說의 권위를 부여한 경전이 바로 『대반열반경후분』이었다. 이 경전이 동아시아에 전해진 이래 동아시아는 물론 신라와 고려에서도 13층탑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원각사13층석탑의 직접적인 모델은 1348년 세워진 경천사13층석탑이다. 이 탑은 元 황실과 고려 왕실의 복을 빌고자 세운 것이지만, 조선 건국 직후 太祖[李成桂]가 아버지 李子春[桓祖]의 眞影을 경천사에 봉안하고 자주 참배하면서, 경천사는 조선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유혈 정변을 통하여 즉위한 세조는 경천사13층탑을 그대로 모방하여 원각사에 13층석탑을 세움으로써, 혈연적으로 환조-태조-세종을 잇는 嫡統이자, 부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군주임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각사13층석탑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최후의 호불군주에 의한 최후의 도성불탑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각사탑은 연산군대 절이 폐사되면서 언젠가 상층부 3개층이 지상으로 내려진채 장기간 방치되었다. 4백년 만인 1946년에 상층부 3개층이 제자리에 올려지면서 비로서 창건 당시의 원형을 회복하였다(도 13). 경천사탑 또한 20세기 초 난폭하게 해체된 이후 장기간 방치되다 1959~1960년의 응급 복구를 거쳐 근 백년 만인 2005년에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었다(도 14). 두 탑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여 각각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쌍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두 탑은 재질, 크기, 양식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닮았다. 필자는 두 탑의 원형 복원에 부응하여 13층탑으로서의 원래 이름을 회복함으로써 13층탑으로서의 의미체계를 온전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말선초 정점에 달한 불탑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카니시카대탑에서 기원하고 『대반열반경후분』에 근거하는 동아시아의 13층탑을 전망하는 데 한국적 연구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22. 4. 3. 심사개시일 2022. 4. 8. 게재 확정일 2022. 5. 20.

참고문헌

【1차 문헌】

1) 佛典

『開元釋教錄』

『勸修定慧結社文』

『洛陽伽藍記』

『大覺國師文集』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大方廣佛華嚴經』 80권본 및 40권본

『大般涅槃經』(T.1; 『南傳大藏經』 권7)

『大般涅槃經後分』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周刊定衆經目錄』

『翻譯名義集』

『法苑珠林』

『法顯傳』

『佛祖統紀』

『西藏大藏經』(西藏大藏經研究會 影印, 1957)

『釋氏要覽』

『釋氏源流』

『續高僧傳』

『宋高僧傳』

『新編諸宗教藏總錄』

『長阿含經』

『參天台五臺山記』

『華嚴經探玄記』

2) 금석문, 문집, 사서, 사지, 지리지 등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石萃編』

『懶齋集』

『大東金石書』(京城帝大法文學部 影印, 1932)

『東國輿地備考』

『東國輿地勝覽』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無衣子詩集』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溟詩集』

『宋史』

『慵齋叢話』

『楡岾寺本末寺誌』

『朝鮮古蹟圖譜』

『朝鮮金石總覽』下(朝鮮總督府, 1919)

『太宗實錄』, 『世祖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續東文選』

『拭疣集』

『中京志』

『清權輯遺』

『春亭集』

【연구 논저】

1) 단행본

高裕燮, 『松都古蹟』 서울: 博文出版社, 1946.

_____, 『朝鮮塔婆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48.

國立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解説集』Ⅰ 石造物編, 대전: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천사십층석탑』Ⅱ 연구 논문, 대전: 2006.

궁중유물전시관, 『원각사 10층대리석탑 특별전』, 서울: 1994.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童玮 編, 『二十二种大藏经通检』, 北京: 中华书局出版, 1997.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學術報告 6),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4.

_____, 『朝鮮美藝史』, 京城: 朝鮮史學會, 1932.

奈良縣教育委員會, 『重要文化財談山神社塔婆修理工事報告書』, 1966.

田村智淳・宮崎大学, 『華嚴經入法界品梵文原典の批判的校訂と現代語訳にもとづく華嚴經の新解釈』, 2002.

定方 晟, 『カニシカ王と菩薩たち』, 東京: 大東出版社, 1983.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New York: Conell University Press, 1985.

Dorjee, Pema, *Stupa and Its Technology: A Tibeto-Buddhist Perspective*, New Delhi and Delhi: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and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1996.

Krom, N. J., *BARABUDUR, Archaeological Description*, vol. II,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27(New Delhi: Gyan Publishing House, reprinted 1986).

Linrothe, Rob, Kerin, Melissa R., Luczanits, Christian, *Collecting Paradise: Buddhist Art of Kashmir and its Legacies*, New York and Evanston: Rubin Museum of Art and Mary and Leigh Block Museum of Art, 2014.

Mitra, Debala, *Buddhist Monuments*, Calcutta: Sahitya Samsad, 1971.

Spooner, D. B., "Excavations at Shāh-jī-ki-dhēri", *Annual Report,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1908-1909*, Calcutta: The Superintendent of Government Printing, 1912.

2) 논문

姜順愛, 「새로 發見된 初槧本『月印釋譜』卷25에 관한 연구—그 構成과 底經을 중심으로—」, 『書誌學報』16, 1998.

_____, 「長興 寶林寺藏 初槧本『月印釋譜』卷25에 관한 연구」, 『月印釋譜 卷二十五』, 성남: 아세아문화사, 2005.

강순형, 「圓覺寺 年表」, 『원각사 10층 대리석탑 특별전』,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1994.

金美京·姜順愛, 「『圓覺經』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46, 2010.

高裕燮, 「扶蘇山 敬天寺塔」, 『高麗時報』1940. 9. 16; 「松都古蹟」, 서울:博文出版社, 1946.

남동신, 「圓覺寺13層塔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오해」, 『美術資料』100, 2021.

文明大, 「圓覺寺10層石塔 16불회도의 도상특징—한성의 조선초기 조각—」, 『講座 美術史』19, 2002.

_____, 「경천사(敬天寺) 10층석탑 16불회도(佛會圖) 부조상의 연구」, 『講座 美術史』22, 2004.

蘇在龜, 「圓覺寺址十層石塔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宋柳娜, 「朝鮮 初期 刊行『地藏菩薩本願經』의 書誌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愼銀貞, 「敬天寺十層石塔의 綜合的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嚴基杓, 「公州 麻谷寺 五層石塔의 건립 시기와 미술사적 의의」, 『文化史學』52, 2019.

禹貞相, 「圓覺寺塔婆의 思想的 研究—특히 十三會에 對하여—」, 『東國思想』1, 1958.

李能和 尙玄, 「大圓覺寺經像鍾塔事蹟一括」, 『佛教振興會月報』1-1, 1915.

李炳熙, 「朝鮮前期 圓覺寺의 造營과 運營」, 『文化史學』34, 2010.

이봉춘, 「孝寧大君의 信佛과 조선전기 불교」, 『불교문화연구』7-1, 2006.

이영중, 「釋氏源流」와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鄉土서울』2, 1958.

李崇寧, 「信眉의 譯經事業에 關한 研究」,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25, 1986.

정은우,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금통보탑 연구」, 『百濟文化』52, 2015.

- 曹潤鎬, 『圓覺經』と宗密の『圓覺思想』, 東京大 박사학위논문, 1998.
- 최연식, 「朝鮮後期『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 11, 1998.
- 王守春, 「釋道安与《西域志》」, 『西域研究』 2006年 4期.
- 關野 貞, 「韓國京城廢大圓覺寺石塔婆」, 『考古界』 제3편 제4호, 1903. 9.
- _____, 「談山神社十三重塔」, 『建築雜誌』 231, 1906.
- 干潟竜祥(Ryusho Hikata), Dr. Litt, 『Gaṇḍavyūha and the Reliefs of Barabudur-Galleries(巴拉ブドゥール廻廊彫刻と華嚴經入法界品)』, 『中野教授古稀記念論文集』, 和歌山縣: 中野教授古稀記念會, 1960.
- 桑山正進, 「Shah-ji-ki dheri主塔の遷變」, 『東方學報』京都 第67冊, 1995.
- 石澤發身, 「閼婆及爪哇異同考」, 『史學雜誌』 제11편 제9호, 제10호, 東京: 史學會, 1900.
- 定方 晟, 「雀離浮圖の名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9-1, 1980.
- Van der Meulen, W. J., S. J., "In Search of HO-LING," *Indonesia*, vol.23, Cornell Univ. Southeast Asia Program, 1977.
- Wong, Wah Sang, "Stupa, Pagoda and Chorten: origin and meaning of Buddhist Architecture," *The 4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e*, 2014.

【DB 자료, 홈페이지】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https://kabc.dongguk.edu/>)
-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main.do>)
-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
- 劉俊文 總纂,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 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SAT) (<https://21dzk.l.u-tokyo.ac.jp/SAT/index.html>)

King Sejo's Establishment of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and Its Semantics

Nam Dongsin^{*}

Completed in 1467,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is the last Buddhist pagoda erected at the center of the capital (present-day Seoul)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commissioned by King Sejo, the final Korean king to favor Buddhism. In this paper, I aim to examine King Sejo's intentions behind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of his enthronement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in the central area of the capital and the enshrinement of sarira from Shakyamuni Buddha and the *Newly Translated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圓覺經). This paper provides a summary of this examination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second chapter of the paper discusses the scriptural background for thirteen-story stone pagodas from multiple perspectives. I was the first to specify the *Latter Part of the Nirvana Sutra* (大般涅槃經後分) as the most direct and fundamental scripture for the erection of a thirteen-story stone pagoda. I also found that this sutra was translated in Central Java in the latter half of the seventh century and was then circulated in East Asia. Moreover, I focused on the so-called Kanishka-style stupa as the origin of thirteen-story stone pagodas and provided an overview of thirteen-story stone pagodas built around East Asia, including in Korea. In addition, by consulting Buddhist references, I prove that the thirteen stories symbolize the stages of the practice of asceticism towards enlightenment. In this regard, the number thirteen can be viewed as a special and sacred number to Buddhist devotees.

The third chapter explores the Buddhist background of King Sejo's establishment of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I studied both the *Dictionary of Sanskrit-Chinese Translation of Buddhist Terms* (翻譯名義集) (which King Sejo personally purchased in China and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King Sejo involved himself in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into Korean.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ctionary of Sanskrit-Chinese Translation of Buddhist Terms was published in the fourteenth century as a type of Buddhist glossary. King Sejo is presumed to have been introduced to the *Latter Part of the Nirvana Sutra*, the fundamental scripture regarding thirteen-story pagodas, through the *Dictionary of Sanskrit-Chinese Translation of Buddhist Terms*, when he was set to erect a pagoda at Wongaksa Temple. King Sejo also enshrined the *Newly Translated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inside the Wongaksa pagoda as a scripture representing the entire Tripitaka. This enshrined sutra appears to be the vernacular version for which King Sejo participated in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Furthermore, I assert that the original text of the vernacular version is the *Abridged Commentary on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圓覺經略疏) by Zongmi (宗密, 780–841),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previously believed.

The final chapter of the paper elucidates the political semantic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ongaksa pagoda by comparing and examining stone pagodas erected at *neungsa* (陵寺) or *jinjeonsawon* (眞殿寺院), which were types of temples built to protect the tombs of royal family members near their tomb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se stone pagodas include the Thirteen-story Pagoda of Gyeongcheonsa Temple, the Stone Pagoda of Gaegyeongsa Temple, the Stone Pagoda of Yeongyeongsa Temple, and the Multi-story Stone Pagoda of Silleuksa Templ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stone pagodas reveals that King Sejo established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at Wongaksa Temple as a political emblem to legitimize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In this paper, I attempt to better understand the scriptural and political semantics of the Wongaksa pagoda as a thirteen-story pagoda. By providing a Korean case study, this attempt will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pagoda culture that reached its peak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It also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n thirteen-story pagodas in East Asia that originated with Kanishka stupa and were based on the *Latter Part of the Nirvana Sutra*.

Keywords: King Sejo, Wongaksa Temple pagoda, Gyeongcheonsa Temple pagoda, thirteen-story pagoda, Kanishka stupa, *Latter Part of the Nirvana Sutra*, *Dictionary of Sanskrit-Chinese Translation of Buddhist Terms*,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Korean translation of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